



남원시 새마을단체, 밀반찬 나눔 송편빚기 행사

남원시 새마을단체는 지난 25일 회원 50여명과 다문화 가정 10여명이 함께 추석맞이 밀반찬 나눔과 송편 빚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들이 고향 방문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조용한 추석을 맞이할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으로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쓰고 식품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리했으며, 직접 만든 장조림, 멸치조림, 김지반과 송편을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650가구에 전달하여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남원시 새마을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경기 자봉센터, 수해피해 지역민 돕기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25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후원받은 생필품 꾸러미를 시, 군 자원봉사센터로 전달했다.

이번 생필품 지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국군제1068부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테크노파크, 롯데퍼트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후원으로 추진됐다.

구성품목은 총 500개의 꾸러미로 라면(5), 햇반(4), 갈비탕(1), 도시락(16), 정수미역(200g), 손소독제(1), 타월(2), 칫솔(5), 치약(3) 9종으로 2,5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이동 급식차량 및 세탁차량을 활용한 급식, 세탁지원과 침수주택 정리, 농경지침수 정리, 비닐하우스 정리 등 수해복구활동에 자원봉사자 1만4,800명이 투입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청년봉사단 '추석맞이 명절음식 나눔'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선)는 추석명절을 맞아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도내 취약계층 120세대에 명절음식 및 밀반찬을 지난 25일 전달했다.

전북도 청년봉사단 기획프로그램인 이날 명절음식 나눔은 홀몸어르신,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이 담긴 추석 음식을 나누며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마련됐으며 3개(군산, 익산, 완주) 시, 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재능 나눔 봉사도 이들에 걸쳐 재료손질부터 조리, 포장까지 직접 활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전류, 불고기, 장조림 등 명절음식 뿐만 아니라 밀반찬도 함께 준비해 더욱 풍성한 먹거리로 나눔이 이뤄졌다. /유호상 기자

익명의 기부자,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30포 쾌척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쌀 30포를 쾌척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4일 정미소를 통해 백미 20kg짜리 30포(150만원 상당)를 읍사무소에 전달했으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나눔을 실천한 이번 사례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기부자 11년째 이뤄지고 있어 나눔에 인색한 요즘 사회에 따스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배관기 읍장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온정을 베푼 기부자에게 감사드리며, 뜻에 따라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경찰,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방문·격려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최근 다가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3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보안자문협의회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타향에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게 위문금과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를 함께해 훈훈함을 더했다.

조완열 협의회장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명절을 맞아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날텐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다"며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영 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보안자문협의회에 감사사를 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료급식 대신 '따뜻한 도시락'

현대차 전주공장 - 전주자봉센터 봉사자, 무료급식 끊긴 홀몸 어르신께 배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마저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도시락' 나눔에 나섰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이번 나눔은 25일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화당 600인분씩 총 2,400인분을 전주지역 홀몸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와 관련 25일 전주시진북동 소재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따뜻한 도시락 만들기에 나섰다.

행복한밥상 푸드봉사단, 청바지대학생봉사단 등과 함께 한 이날 따뜻한 도시락 만들기에 참가자들은 친환경 농산물 재료를 활용해 돼지고기와 소고기맛국, 깻잎장아찌 등을 직접 만들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례를 모범 삼아 지역의 다른 기업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보다 다양한 자원봉사 연계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전북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매년 3,000~6,000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쾌척해 따뜻한 밥상 나눔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구례지역 수해민들을 돕기 위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따뜻한 밥상 나눔을 위한 밤차 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안주=이종복 기자

임실군자봉센터, 코로나19 예방위한 '안녕리액션' 캠페인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소병중)는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녕 입실, 안심 입실 만들기 안녕리액션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감염 확산, 환절기 독감유행, 추석 연휴로 인해 외부인 유입이 증가하는 등 개인생활 방역이 중요시 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행동지침 실천이 소홀해짐에 따라 천연비누와 전단지 배포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두기 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3,000여개의 천연비누를 이용하여 지난 16일 입실, 17일 강진 전통시장에서 추진하였으며 25일 관촌 장날을 맞이하여 관촌시장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실군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3,500여정의 면마스크 만들기, 코로나 예방



방역활동, 개인생활방역 캠페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150세대에 추석맞이 송편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활동으로 청소년 온라인 교육, 어르신을 위한 목도리뜨기 봉사활동, 홀몸어르신 및 장애가족을 위한 반려식물 나눔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원광대병원,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 방역수칙 준수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은 지난 24일 철저한 방역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2021년 신규 간호사 채용 시험을 치렀다.

이번 면접시험은 2021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응시서류를 접수한 지원자 중 서류 심사 및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인성 검사를 통과한 498명이 대상이었다.

신규 간호사 채용 인원은 총 300명 모집에 1,095명이 지원해 365%의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응시율을 보인 것은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단면으로 보인다. 최종 합격자는 추후 원광대병원 홈페이지-채용정보센터-합격자조치를 통해 발표된다.

면접 장소와 대기 장소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감염관리 책임자, 방역담당요원 입회하여 출입 통제 요원들이 출입 시 손 소독,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면접시험 응시자들도 1.5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사항을 충실히 준수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서전주로타리클럽, 평화1동에 물품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회장 최범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MOU 협약을 체결한 평화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백미10kg 20포, 라면 등 10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나눴다.

최범현 회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에, 큰 나눔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봉사의 계획과 실천을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경찰 개복파출소, 아동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 개복파출소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24일 생활안전협의회 참석하여 군산시 신청동에 위치한 삼성애육원 및 구세군군산후생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작은 정성을 모아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은 이웃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북시군의장협의회, 수해농가 위문품 전달

임실군의회는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10여 농가를 찾아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공한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위문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협의회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임실군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촌면, 신덕면의 피해 농가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위주로 제공했다.

진남근 의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음에도 아직 수해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아 근심이 크며, 하루 빨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조상중 정읍시장, 정읍초등학교장 감사패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은 24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통봉사와 교육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정읍초등학교장 감사패를 받았다.

조상중 의장은 평소 투철한 교육관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열정으로 정읍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 교통봉사를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으며, 정읍교육공공체의 교육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및 학부모, 교사들에게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정읍초등학교 교육활동에 크게 공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호원대, 동기유발 프로그램 비대면 진행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은 지난 24~25일 이틀 간 2020 희망디딤돌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희성 총장과 이상오 교양교육원장이 각 학부(과) 실시간 강의에 특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늘려있던 학습동기가 새롭게 살아났다"며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해 자신감이 증진됐고 효과적인 소통 기법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은성 기자



대한적십자사, 남원 호우피해 가정 위문품 전달

남원시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남원지구협의회가 추석을 맞아 남원지역 호우피해 660세대에 전기보온담요와 구호세트 및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침수피해가 컸던 금지면 하도마을 이장은 "호우피해 당시 폭염 속에서도 급식지원과 빨래 봉사를 헌신적으로 해준 적십자사 봉사자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데, 추석 위문품까지 전달해줘 너무 감사하고 주민들에게 잘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이재민 구호를 위해 온힘을 쏟은 남원시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번 전달품은 피해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강진면행복보장협의회,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강진면행복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김재기, 강준희)는 2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촘촘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행복나눔배달부'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행복나눔배달부'는 취약계층인 혼자사는 어르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복지욕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동위원장(김재기, 강준희)을 비롯한 위원들은 관내 50가구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물품을 제공했다.

더불어 가정과 사회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과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복지상담을 추진해 진정한 행복배달부 역할에 충실했다. /임실=진홍영 기자